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무단 방치 전동
킵보드 견인 · 견인료 부과

정읍시가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전동킵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 및 견인료 부과라는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교통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동킵보드 편성해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킵보드를 견인하고 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이다.

적발된 전동킵보드는 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동킵보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읍경찰서에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원동기 면허 미보유자 운행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통합납부시스템 시행

부안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통합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스템 도입으로 군민들은 주소와 본인인증을 통해 수도요금을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통합납부시스템은 기존의 별도의 방문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번거로운 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은 물론, 다자녀 감면 혜택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이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또한 통합납부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후면에 이용방법을 안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여행 반값 기차 타고 즐기세요”

정읍시 · 한국철도공사, 철도여행 활성화 MOU 체결... 전국 10개 지자체 참여

“이제 정읍여행은 반값 기차 타고 즐기세요!”

내년부터 기차를 타고 정읍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철도 요금을 절반만 부담하며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읍시는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관광공사 관계자, 10개 지자체(정읍, 곡성, 논산, 보령 등)가 참여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은 철도 요금 50%를 할인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방문해 최소 3시간 이상 머물며 내장산국립공원, 구절초지방정원, 월영습지와 솔티숲 등 10개소의 관광지에 부착된 QR



코드를 코레일에서 인증해야 한다.

시는 또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한 여행사에서 정읍 관련 관광 상품을 운영할 경우에도 50%의 운임 요금 할인 이 적용돼 여행사의 상품 기획 시 정읍이 우선 포함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철도 연계 등 관광 활성화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와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관광인프라 확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특성화 사업 및 철도 연계 등을 통한 관광자원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코레일 자체 관광 상품 구성 시 우선 포함 등 코레일북 관광 상품 구성 및 판매 등을 지원한다. 또한 50% 할인 할인된 가격의 철도 승차권과 숙박 렌트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운영하고 지자체 필요 시 임시 관광 열차(432석, 단풍철 등)도 우선 배정한다.

협약식에서 송금현 부시장은 “정읍은 KTX 정차역 등 철도 기반이 어느 지역보다 탄탄하고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2024년 지방자치콘텐츠 대상-기초자치단체 여성·시니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시니어 건강복지 대책 마련’

고창군, 지역소멸 문제 해결 ‘지방자치콘텐츠 대상’ 기관 수상

고창군이 2024년 지방자치콘텐츠 대상-기초자치단체 여성·시니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콘텐츠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 대상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TV 주관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시상 내용은 총 10개 분야(KAI·디지털, 환경·안전, 문화·관광, 교육·청년, 여성·시니어, 복지·주민참여, 지역개발, 경제·일자리, 도시·교통, 6차 산업)로 이뤄진다.

고창군은 ‘여성·시니어 분야’에서 고품격에 따른 건강복지 대책 마련에 우수한 정책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창군보건소는 3대 어르신 보건 의료정책(△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마을 주치의·제 운영 △65세 이상 보건기관 진료비 무

료 등)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하여 현재까지 688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 수혜대상자의 자작 불편 해소로 만족도는 99%에 달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마을 주치의·제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기관의 공중보건의를 마을주치의·사로 지정, 60개 경로당과 섬마을을 찾아 총 3만5000명에게 기초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기관을 방문한 65세 이상 어르신 5만8000여명에게 진료비 면제 혜택(총 630만원)을 제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국가유산 활용사업... 문화도시 위상 높인다

동학농민혁명 · 내장사 · 김명관고택 등 3개 사업 운영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 선보여

정읍시가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며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시는 동학농민혁명, 내장사·김명관고택을 주제로 △생생 국가유산(다시 피는 녹두꽃) △전통산사 국가유산(나를 찾는 명상 순례) △고택종가집 활용(1784년,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등 3개 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도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국가유산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에 선정돼 총 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

한 접근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읍의 고유한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요소를 통합해 특별한 매력을 창출하며, 정읍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본격 돌입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부안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

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6억원이 감액된 총 7,978억원 규모로 원안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4억원이 증액된 8,082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박병래 의장은 “내년도 본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5개소 공사 착수

부안군이 민선 7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부안실내테니스장과 보안·변산·하서국민체육센터, 위도실내케이트볼장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사 착수한 부안실내테니스장은 스포츠파크 부지 내에 사업비 8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55㎡, 테니스코트 4개 규모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11월에 착수한 보안면과 변산면, 하서면 국민체육센터는 각종 행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다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으로 사업별 4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

정이다. 위도면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케이트볼장도 착수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9월 설계 착수한 주산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용을 위한 실내테니스장을 2026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부안면다비볼링장은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부안군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영에 들어간 부안면다비체육센터, 부안·출포·행안·백산 다목적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